



# MUMBAIKAR

: ) Mumbaikar 는 마라ठी어로 뭄바이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RAONATTI 9<sup>TH</sup> INDIA MUMBAI TEAM**

# Contents

1. Mumbai **툽아보기**

2. **월별 활동**

3. **문화체험**

4. **팀워크 다지기**



# Mumbai

## 방문해보기

# Mumbai? Bombay?



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어촌에서 인구 1800만, 인도  
전체 주식거래의 70%, 인도  
평균소득의 두 배, 인도  
100대 기업 중 52개의 기업이  
위치한, 연간 천여 편의  
영화가 제작 되는 볼리우드가  
있는 도시 뭄바이.

# Antilia and S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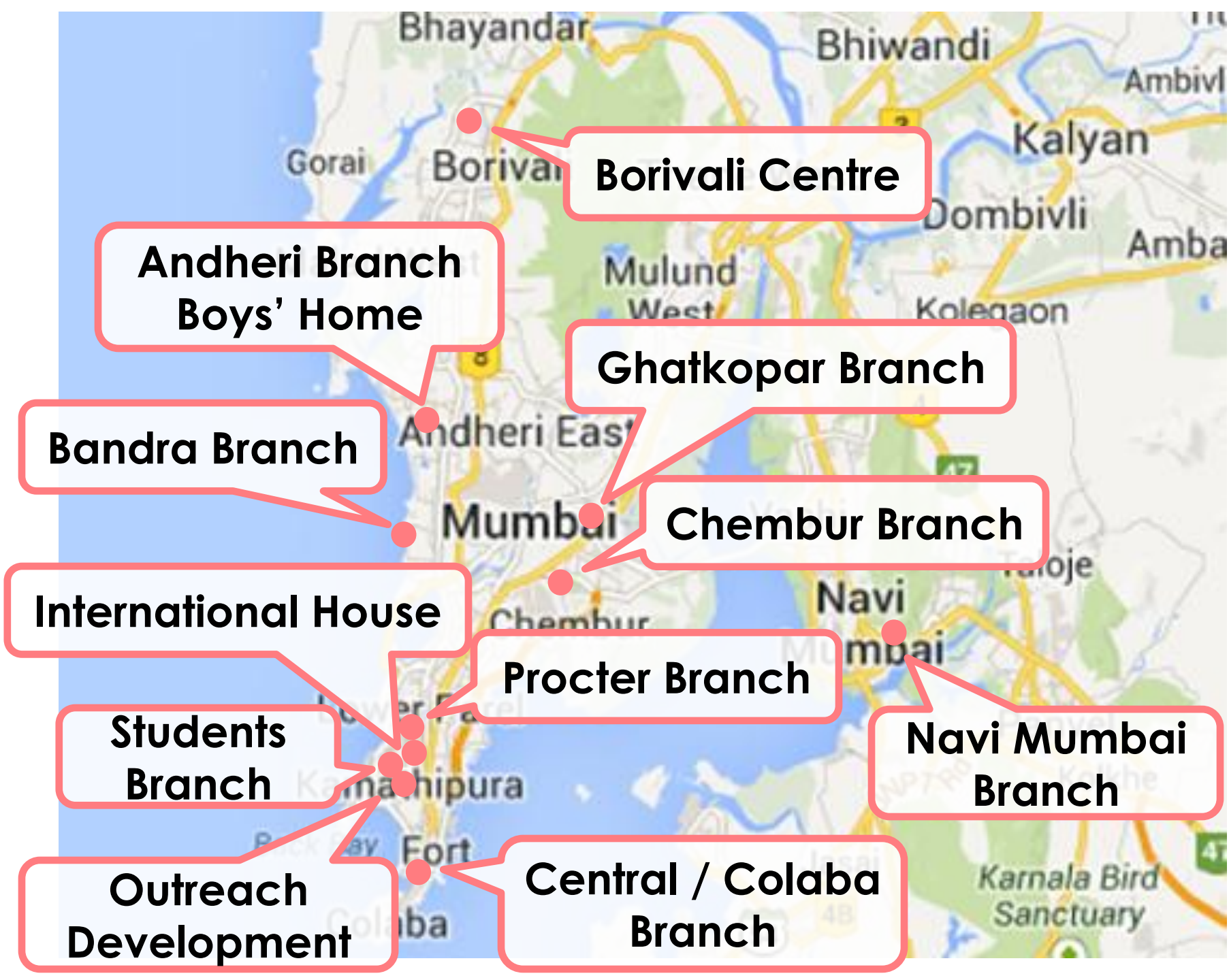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안틸라와 길거리 슬럼이 공존 하는 나라 인도 그리고 뭄바이.



# Bombay YMCA



인도 제 2의 도시이자 경제수도인 Mumbai에 자리잡고 있는 Bombay YMCA는 12개의 Branch와 6개의 Department로 구성된 도시 규모만큼이나 큰 규모의 YMCA이다.



**Borivali Centre**

**Andheri Branch  
Boys' Home**

**Ghatkopar Branch**

**Bandra Branch**

**Chembur Branch**

**International House**

**Procter Branch**

**Navi Mumbai  
Branch**

**Students  
Branch**

**Outreach  
Development**

**Central / Colaba  
Branch**



# March

Walcu



# Visiting Branch



우리는 3월 7일에 이곳 뭄바이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첫번째 주에 8개의 브랜치들을 방문하고 그곳의 기관장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곳에서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스포츠, 직업 교육, 유치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직접 참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Nursery



5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pre-school로서 오전에 교육활동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였으며 선생님을 도와 보조교사 활동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형성하였다.



## Daycare Center(DCC)

Day Care Centre는 흥등가 아이들의 교육과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다. 우리는 영어 노래와 율동을 준비해 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거나 그곳에 있는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를 했다.



# Night Study Center(NSC)



Night Study Centre는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 알파벳과 영어노래를 가르쳐 주고 아이들의 학습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April**

# Day Care center



4월 2일부터 8일까지 Day Care Center 의 외벽에 벽화 작업을 했다. 평소에 이곳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것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주변의 나쁜 환경을 개선하고자 벽화를 선택했다.(깨진 유리창 이론)





# Dharavi



뭄바이에서 가장 큰 슬럼인 Dharavi를 social worker와 함께 방문했다. 이 지역의 social workers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사람들이 슬럼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 볼 수 있었다.



# English Class

잉글리쉬 클래스에  
보조교사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월, 수, 금 주 3회로 진행되며  
VTC여성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다.



# Juhu Street Children



이곳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boys' home과 비슷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곳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식사를 하며 보다 적은 인원이고 근처에 있는 Juhu Beach를 관리 하고 있다. 종이접기나, 딱지, 그림그리기, 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May**  
May

# Day camp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Day camp가 있었다. 이 캠프에서 volunteer로 참여했고 Korean culture session으로 Andheri YMCA 에서는 제기를 Bandra YMCA에서는 world citizenship education 진행 했다.



Look at the top of the Role card.

High Class : 20% World Population	have 82.7% World Property
Middle Class : 60% World Population	have 15.9% World Property
Low Class : 20% World Population	have 1.4% World Property

# Lakeside Camp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Lakeside Camp에  
volunteer로서 참여를 했다.

딱지 sessions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딱지를 치며  
캠프를 즐길 수 있었고

캠프파이어 때 강남스타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캠프에

참여한 camper와 volunteer가  
함께 어울려 잊지 못할 밤을 보낼  
수 있었다.









**June  
& July**

# Mid Evaluation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활동 했던 지역을 둘러보고 뭄바이의 유명한 빨래터인 도비갓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350ppm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또한 평가단이 볼 수 있었다. 중간평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한 3일이었다.



# 350ppm Campaign

6월 3일부터 7일까지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일과 4일에는 배너를 게시하고, 5일에는 환경 영화제, 6일과 7일에는 재활용을 목표로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어주기, 신문지로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했다.

이러한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는 인도에 와서부터 줄곧 느꼈던 쓰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쓰레기들이 나뉘지지 않고 한 곳에 버려지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 또 정부에서조차 재활용 구분 없이 하나의 쓰레기통에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재활용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 것보다 쓰레기들도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조금이나마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 350ppm Campaign

본 캠페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환경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에 관련 된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11번째 시간>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환경 전문가, 운동가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견해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 사전에 길러놓은 식물을 페트병으로 만든 화분에 심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나눠주면서 자신이 일상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골라 붙이도록 해 이 점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기 할 수 있도록 했다.

폐 신문지를 이용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종이가방을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 Morning Tuition

Boys' Home에서는 아침마다 튜션이 있다. 튜션을 해주기 위해 3명의 봉사자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1학년 아이들 10명은 정규적인 튜션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의 아이들의 학교 숙제와 영어, 수학 공부를 도와주며 튜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 Soccer Coaching

Boys' Home 아이들의  
강력한 요구와 나한영 단원이  
축구를 배웠던 경험을 활용해  
축구 코칭을 우리 기수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가능한 시간인 화, 목, 토 주  
3일로 해서 오전에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그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높은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했다.



# Toy Library

아이들이 많은 장난감들이 Boys' Home에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소를 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계획 역시 지연되었다. 결국 장난감을 구분하고 그 구성물을 확인하는 작업과 그 구성물을 정리한 표를 장난감 앞에 붙이기까지만 할 수 있었다.





# 문화 체험

# Mehendi

YMCA는 여성들을 위해 메헨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ORD 브랜치장인 Jinson의 도움으로 선영, 조은, 보람 단원이 메헨디 클래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Hindi Class



인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현지 언어를 배웠다. 인도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힌디어는 인도의 공식 언어여서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이나 현지인들과 만날 때 힌디어를 사용하니 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



# Holi



Holi는 인도에서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이 축제는 봄이 오는 걸 축하하기 위해 열린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는지 볼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Elephanta Caves



Elephanta Caves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시바신에 관한 조각상을 구경 할 수 있었다.



# Cricket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크리켓을 실제 경기장에 가서 관람 했다. 4월 29일에 열린 Mumbai Indians와 Kings XI Punjab의 경기를 관람 했다.



# Dance Class



현지 코디네이터가 인도 전통 춤을 배울 것을 추천해주었다. 인도 전통 춤은 '콜리'라는 춤인데 우리는 전통 춤보다는 우리가 직접 보았던 인도 영화에 나온 볼리우드 춤을 배울 것을 원했다. 결국 영화 'Yeh jawani hai deewani' 삽입곡인 Badtameez dil 노래에 맞춰 볼리우드 춤을 배우게 되었다. 인도 전통 춤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던 인도 영화에 나왔던 익숙한 인도 노래에 맞춰서 춤을 배운다는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티위크  
다치기

# Book Crossing

각자가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씩을 가지고 와서 돌려 읽음으로써 인도 사회, 지역 사회(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같이 의견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박선영 단원이 가져온 <인도, 꿏다>라는 책을 통해서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Manito

우리는 매주 돌아가면서  
마니또를 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션 수행, 편지 쓰기,  
벌칙 등을 통해 팀원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편지의 경우 의사소통의  
한 방법, 갈등해결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 THANK YOU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대학생해외봉사단

RaonAtti